

2020년 2분기 창원시 고용동향

2020. 7

창원상공회의소

I. 조사개요

1. 조사목적

- 본 조사는 고용보험DB를 활용한 창원지역 사업장과 근로자의 규모별, 업종별 고용동향과 퇴직 후 이동경로 등을 파악해 지역의 고용 지원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조사방법

-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를 활용한 분석
 - 고용보험DB는 고용보험 전산망 운영을 통해 축적된 행정 데이터로써 고용정책 수립, 평가 및 노동시장 동향 분석에 신속하고 세분화된 분석에 활용하기 용이함.
 - 고용보험DB 법적근거
 - 통계법 제18조(통계작성의 승인) 규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 (고용보험통계: 승인번호 제327002호)
 - 피보험자의 포괄범위
 -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계약형태가 ‘상용’, ‘계약직’인 근로자 단,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(주15시간) 미만인 자, 국가·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되지 않음
 - 고용보험DB 이용 시 유의사항
 - 분기 중 최신 월의 통계는 잠정치 통계이며, 익월 발표시 확정치로 대체됨
 - 고용보험DB는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수행정자료이며, 포괄하지 않은 부분(자영업자, 미가입자, 구직급여를 받지 않는 실업자, 비경제활동인구 등)이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
 - 서비스업은 일용근로자 비중이 대체로 높아 전체 동향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

3. 조사기간

- 2020년 7월 28일 ~ 29일

4. 조사사항

-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(규모별, 업종별)
-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자수
-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수(규모별, 업종별)

II. 요약 및 시사점

- ◎ 2분기 창원지역 제조업 근로자 수가 26개 분기 연속 감소했음. 신규 취업자 수와 퇴직자 수가 동시에 급감하여, 고용시장의 경직이 진행 중임. 정부 고용안정 지원에 따른 퇴직자 수 감소에도 ‘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’은 퇴직사유별로는 유일하게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, 특히 제조업 근로자 수가 밀집한 성산구가 두드러졌음. 이는 오랜기간 경기침체를 겪어온 데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산차질, 수요부진 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고정비 지출도 감당할 수 없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. 더욱이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이러한 기업의 증가속도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됨.
- ◎ 2020년 2분기 창원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(이하 근로자) 수가 전년 동기 대비 0.1% 감소한 25만 1,440명을 기록했다. 규모별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5.5% 증가했지만,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감소했음.
- ◎ 제조업을 근로자 수의 감소는 26개 분기 연속으로 이루어진 반면, 서비스업의 근로자 수는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 증대에 따라 서비스업 근로자 수가 제조업 근로자 수를 상회한데 이어 그 격차도 심화하고 있음.
제조업 근로자는 ‘1차 금속’(-12.9%), ‘자동차 및 트레일러’(-5.8%), ‘기계 및 장비’(-5.3%) 등 비중이 큰 업종에서 감소폭이 컸음, 서비스업의 경우 보건 및 방역, 공공일자리, 소비촉진 및 내수활성화 지원책 등의 영향으로 ‘공공행정, 사회보장’(+7.5%), ‘보건업 및 사회복지’(+6.0%), ‘숙박 및 음식점’(+4.2%) 등의 근로자 수가 증가했음. 반면, 제조업 경기와 밀접한 서비스업종인 ‘사업지원 및 임대’(-8.2%), ‘운수 및 창고’(-4.3%), ‘금융 및 보험업’(-0.3%) 등은 감소했음.
- ◎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창원지역의 고용쇼크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,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큰 폭의 감소(5개 분기 연속)를 보였고, 퇴직자 수 또한 11.0% 급감해 창원지역의 고용시장 경직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. 퇴직자 수의 급감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책과 경기 불안으로 근로자의 이직 성향이 약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.
- ◎ 2분기 퇴직자 수가 큰 폭의 감소를 보인 가운데, 유독 ‘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(해고, 권고사직, 명예퇴직 포함)’이 지난 1분기에 비해 20.7% 증가했음. 반면, 나머지 사유별 퇴직자 수는 큰 폭의 감소를 보임. 이는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고정비 지출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의 수가 증가했음을 의미함.
특히 이는 제조업 근로자가 밀집한 성산구가 두드러졌음. 성산구 퇴직자 중 ‘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’ 비중이 34.2%로 의창구(18.7%), 마산합포구(22.7%), 마산회원구(19.0%), 진해구(19.4%)에 비해 높은 수준임.

Ⅲ. 창원시 고용동향

1. 창원시 근로자(고용보험 피보험자) 현황

- 2020년 2분기 말 기준 창원지역 고용보험¹⁾에 가입 상시근로자(고용보험 피보험자, 일용직 근로자 제외) 수는 25만 1,440명임. 이는 전년 동분기 대비 0.1%(290명) 감소한 수임.
- 규모별로 '300인 이상 사업장' 근로자 수가 2.9% 감소한 6만 146명, '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' 3만 3,144명(-1.9%), '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' 9만 2,289명(-1.4%)임. 반면 '10인 미만 사업장' 근로자 수는 5.5% 증가한 6만 5,861명을 기록했음.

창원시 규모별 근로자 수 동향

(단위 : 명)

	'18. 2Q	'19				'20	
		1Q	2Q	3Q	4Q	1Q	2Q
전 체	246,887 (0.7%)	253,110 (3.0%)	251,730 (2.0%)	251,599 (1.2%)	253,285 (0.2%)	251,418 (-0.7%)	251,440 (-0.1%)
10인 미만	60,886 (2.6%)	61,386 (1.5%)	62,398 (2.5%)	63,804 (2.3%)	64,984 (1.4%)	65,262 (6.3%)	65,861 (5.5%)
10인 이상	93,621 (1.0%)	96,622 (4.5%)	93,604 (0.0%)	93,056 (-0.6%)	92,587 (-3.4%)	92,469 (-4.3%)	92,289 (-1.4%)
100인 미만	33,564 (-0.8%)	35,965 (5.6%)	33,793 (0.7%)	33,487 (-2.0%)	33,184 (-2.2%)	33,725 (-6.2%)	33,144 (-1.9%)
100인 이상	58,816 (-1.0%)	59,137 (0.6%)	61,935 (5.3%)	61,252 (4.9%)	62,260 (5.9%)	59,962 (1.4%)	60,146 (-2.9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* 분기 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1) 고용보험 적용제의 근로자(고용보험법 제8조, 10조 및 령 제2조, 제3조)

-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(단, 고용안정,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)
-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
-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, 단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(실업급여에 한함)에 가입할 수 있음.
-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
-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
- 외국인근로자(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가진자 중 보험가입신청자,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자는 제외)

2. 창원시 업종별 근로자 현황

- 창원 전체 근로자 수가 감소한 가운데, 제조업의 근로자 수가 10만 6,694명으로 전년 대비 2.5% 감소했고, 건설업도 9,878명으로 1.1% 줄었음. 반면, 서비스업의 근로자 수는 13만 1,551명으로 2.0% 증가했음.
- 제조업 근로자 수의 전년 동기 대비 감소는 26개 분기(6년 2개월) 연속으로 이루어졌음. 반면 서비스업의 근로자 수는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 서비스업 근로자 수가 제조업 근로자 수를 상회한데 이어 그 격차도 심화하고 있음.

창원 업종별 근로자 수 동향

(단위 : 명)

	'18. 2Q	'19				'20	
		1Q	2Q	3Q	4Q	1Q	2Q
전 체	246,887 (0.7%)	253,110 (3.0%)	251,730 (2.0%)	251,599 (1.2%)	253,285 (0.2%)	251,418 (-0.7%)	251,440 (-0.1%)
제조업	110,919 (-0.5%)	110,114 (-0.7%)	109,466 (-1.3%)	108,398 (-2.2%)	107,789 (-3.1%)	109,126 (-0.9%)	106,694 (-2.5%)
서비스업	122,451 (1.9%)	129,461 (6.8%)	129,012 (5.4%)	129,811 (4.6%)	132,045 (3.3%)	129,077 (-0.3%)	131,551 (2.0%)
건설업	10,314 (-2.6%)	10,131 (-1.9%)	9,985 (-3.2%)	9,951 (-3.6%)	9,970 (-3.3%)	9,740 (-3.9%)	9,878 (-1.1%)
기타	3,203 (3.5%)	3,404 (2.3%)	3,267 (2.0%)	3,439 (1.4%)	3,481 (2.6%)	3,475 (2.1%)	3,317 (1.5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* 분기 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* 서비스업은 '도매 및 소매업', '운수 및 창고업', '숙박 및 음식점업', '정보통신업', '금융 및 보험업', '부동산업', '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', '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', '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', '교육 서비스업', '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', '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', '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'을 포함하고 있으며, 기타는 '농업, 임업 및 어업', '광업', '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', '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', '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', '국제 및 외국기관'을 포함함.

- 창원 제조업의 업종별 근로자 수는 '기계 및 장비'가 2만 9,256명으로 가장 많았고, '자동차 및 트레일러' 1만 6,663명, '전기장비' 1만 5,383명, '1차 금속' 9,883, '기타 운송장비' 9,615명 순임.
- 제조업 중 '전기장비'+18.9%), '의료·정밀·광학기기'+0.7%)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 동분기 대비 근로자 수 감소를 보였음. 특히 '1차 금속'(-12.9%), '자동차 및 트레일러'(-5.8%), '기계 및 장비'(-5.3%) 등 근로자 수 비중이 큰 업종에서 감소폭이 컸음.

창원 제조업 업종별 근로자 수 동향

(단위 : 명)

	'18. 2Q	'19				'20	
		1Q	2Q	3Q	4Q	1Q	2Q
제조업	110,919 (-0.5%)	110,114 (-0.7%)	109,466 (-1.3%)	108,398 (-2.2%)	107,789 (-3.1%)	109,126 (-0.9%)	106,694 (-2.5%)
기계 및 장비	31,454 (3.2%)	30,988 (-1.6%)	30,888 (-1.8%)	30,495 (-2.2%)	30,066 (-3.4%)	29,745 (-4.0%)	29,256 (-5.3%)
자동차 및 트레일러	18,380 (-2.9%)	17,968 (-3.0%)	17,691 (-3.7%)	17,570 (-4.1%)	17,433 (-5.2%)	16,753 (-6.8%)	16,663 (-5.8%)
전기장비	12,623 (-1.7%)	12,843 (0.9%)	12,941 (2.5%)	12,642 (1.0%)	12,816 (0.7%)	15,842 (23.4%)	15,383 (18.9%)
1차 금속	12,126 (-3.1%)	11,446 (-6.7%)	11,349 (-6.4%)	11,281 (-6.7%)	11,137 (-7.6%)	10,803 (-5.6%)	9,883 (-12.9%)
기타 운송장비	9,956 (-8.8%)	10,113 (2.6%)	10,016 (0.6%)	9,936 (-2.2%)	9,954 (-3.8%)	9,768 (-3.4%)	9,615 (-4.0%)
금속가공 (기계·가구제외)	8,051 (-1.0%)	8,070 (0.9%)	8,014 (-0.5%)	7,941 (-2.8%)	7,927 (-1.9%)	7,851 (-2.7%)	7,722 (-3.6%)
전자부품·컴퓨터·통신장비 등	6,215 (3.3%)	6,354 (3.6%)	6,397 (2.9%)	6,375 (1.6%)	6,314 (-0.2%)	6,357 (0.0%)	6,380 (-0.3%)
의료·정밀·광학기기 등	3,490 (5.1%)	3,476 (4.7%)	3,445 (-1.3%)	3,452 (1.2%)	3,589 (5.4%)	3,579 (3.0%)	3,470 (0.7%)
고무·플라스틱 제품	1,823 (-4.5%)	1,797 (-0.8%)	1,756 (-3.7%)	1,743 (-2.3%)	1,728 (-1.9%)	1,722 (-4.2%)	1,728 (-1.6%)
식료품	1,501 (-2.8%)	1,651 (10.6%)	1,634 (8.9%)	1,697 (7.7%)	1,683 (4.5%)	1,624 (-1.6%)	1,608 (-1.6%)
기타	5,300 (10.1%)	5,408 (3.2%)	5,335 (0.7%)	5,266 (-1.0%)	5,142 (-4.3%)	5,082 (-6.0%)	4,986 (-6.5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※ 분기 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※ 기타 제조업은 '가구', '가죽·가방 및 신발', '목재 및 나무제품(가구제외)', '비금속 광물제품', '섬유제품(의복제외)', '음료', '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', '의복·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', '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', '화학물질 및 화학제품(의약품 제외)'을 포함함.

- 창원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'보건업 및 사회복지'이 3만 4,784명으로 가장 많았고, '도매 및 소매업'(1만 4,783명), '사업시설 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'(1만 4,047명), '전문, 과학 및 기술'(1만 2,404명), '운수 및 창고업'(1만 529명), '교육'(8,751명), '숙박 및 음식점업'(8,547명)이 뒤를 이었음.
- 보건 및 방역강화와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 증가, 소비촉진 및 내수활성화 지원책 등의 영향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, 공공행정, 숙박 및 음식, 도소매 등의 서비스업은 증가했지만, 제조업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서비스업종인 운수 및 창고, 사업지원 및 임대, 금융 및 보험업 등은 근로자 수 감소를 보였음.

창원 서비스업의 근로자 수 추이

(단위 : 명)

	'18. 2Q	'19				'20	
		1Q	2Q	3Q	4Q	1Q	2Q
서비스업	122,451 (1.9%)	129,462 (6.8%)	129,013 (5.4%)	129,812 (4.6%)	132,046 (3.3%)	129,077 (-0.3%)	131,551 (2.0%)
보건업 및 사회복지	30,095 (4.2%)	31,907 (8.1%)	32,807 (9.0%)	33,461 (8.2%)	33,758 (6.7%)	33,852 (6.1%)	34,784 (6.0%)
도매 및 소매업	14,262 (2.8%)	14,361 (1.0%)	14,762 (3.5%)	14,691 (2.3%)	14,671 (1.6%)	14,479 (0.8%)	14,783 (0.1%)
사업 지원 및 임대	16,621 (3.3%)	15,182 (-8.2%)	15,301 (-7.9%)	14,801 (-6.0%)	14,679 (-6.3%)	14,549 (-4.2%)	14,047 (-8.2%)
전문, 과학 및 기술	11,278 (-3.0%)	11,635 (4.7%)	11,783 (4.5%)	11,880 (5.3%)	11,972 (5.4%)	12,221 (5.0%)	12,404 (5.3%)
운수 및 창고	10,611 (-0.7%)	10,978 (3.6%)	11,003 (3.7%)	11,000 (2.7%)	10,903 (0.4%)	10,604 (-3.4%)	10,529 (-4.3%)
교육	7,482 (-2.9%)	7,787 (10.4%)	8,423 (12.6%)	8,482 (9.6%)	8,677 (6.1%)	8,307 (6.7%)	8,751 (3.9%)
숙박 및 음식점	7,360 (11.3%)	7,915 (11.0%)	8,205 (11.5%)	8,468 (13.7%)	8,797 (15.4%)	8,533 (7.8%)	8,547 (4.2%)
공공행정, 사회보장	4,308 (19.3%)	8,782 (79.6%)	5,540 (28.6%)	5,307 (3.8%)	6,978 (-3.2%)	5,122 (-41.7%)	5,957 (7.5%)
협회 및 단체, 수리	5,692 (-7.0%)	5,842 (3.5%)	5,788 (1.7%)	5,745 (-1.1%)	5,675 (-2.4%)	5,728 (-2.0%)	5,884 (1.7%)
부동산	5,125 (2.5%)	5,139 (4.0%)	5,173 (0.9%)	5,464 (2.5%)	5,401 (4.9%)	5,474 (6.5%)	5,525 (6.8%)
금융 및 보험업	5,142 (-0.6%)	5,164 (-0.1%)	5,176 (0.7%)	5,179 (0.9%)	5,174 (0.6%)	5,126 (-0.7%)	5,161 (-0.3%)
예술, 스포츠	2,105 (-11.7%)	2,357 (14.4%)	2,521 (19.8%)	2,764 (33.9%)	2,762 (21.7%)	2,551 (8.2%)	2,644 (4.9%)
정보통신	2,370 (-0.3%)	2,412 (3.7%)	2,530 (6.8%)	2,569 (8.0%)	2,598 (6.7%)	2,531 (4.9%)	2,535 (0.2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※ 분기 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3. 창원시 고용보험 자격 취득(취업)·상실(퇴직) 현황

- 2020년 2분기, 노동이동의 정도를 보여주는 취업자 수는 2만 5,4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.8% 줄었고, 퇴직자는 2만 4,892명으로 11.0% 감소했음.
- 지역 제조업의 장기침체와 코로나19 확산이 더해져 기업의 채용의지가 크게 둔화함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5개 분기 연속 감소했음. 또한 정부의 고용안정지원금 등 고용유지 지원책 확대로 퇴직자 수도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여 창원지역 고용시장의 경직성이 커지는 것으로 보임.
- 취업자 중 경력취업자는 6.6% 감소한 2만 2,676명, 신규취업자는 7.9% 줄은 2,798명으로 신규·경력 취업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임.

취업 및 퇴직자 수

(단위 : 명)

	'18. 2Q	'19				'20	
		1Q	2Q	3Q	4Q	1Q	2Q
취업자	30,148 (11.7%)	39,310 (10.9%)	27,329 (-9.4%)	26,740 (-4.0%)	27,392 (-3.3%)	33,626 (-14.5%)	25,474 (-6.8%)
신규취업자	2,930 (-3.3%)	5,207 (24.8%)	3,038 (3.7%)	3,192 (-5.9%)	3,068 (-12.1%)	4,052 (-22.2%)	2,798 (-7.9%)
경력취업자	27,218 (13.5%)	34,103 (9.0%)	24,291 (-10.8%)	23,548 (-3.7%)	24,324 (-2.1%)	29,574 (-13.3%)	22,676 (-6.6%)
퇴직자	28,740 (15.3%)	38,534 (8.9%)	27,979 (-2.6%)	26,422 (1.7%)	25,006 (4.4%)	38,243 (-0.8%)	24,892 (-11.0%)

※ 행정통계를 확정된 이후 취득·상실에 대한 수정신고 등이 있을 수 있어, '전분기 피보험자 + 당분기 취득자 - 당분기 상실자'가 당월 피보험자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.

- 2분기 퇴직 사유별로 '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'가 1만 2,120명으로 48.7%, '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'이 6,278명으로 25.2%를 차지했고, 이어서 '계약만료, 공사종료' 4,240명(17.0%), '폐업, 도산'(5.0%) 순으로 나타났음.
- 코로나19의 본격적인 확산 이전인 1분기와 비교해 사유별 퇴직자 수 증감을 보면, 전체 퇴직자 수가 11.0% 급감한 가운데 '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'와 '계약만료, 공사종료'가 각각 29.7%, 64.2%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사유별 퇴직자 수가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였음. 하지만 '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'에 의한 퇴직은 1분기 대비 20.7%로 오히려 급증한 모습임.

2020년 2분기 사유별 퇴직자 수

(단위 : 명)

퇴직 사유	2020 1분기	2020년 2분기	전분기 대비
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	17,229 (45.1)	12,120 (48.7)	-29.7
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(해고, 권고사직, 명예퇴직 포함)	5,201 (13.6)	6,278 (25.2)	20.7
계약만료, 공사종료	11,829 (30.9)	4,240 (17.0)	-64.2
폐업, 도산	1,653 (4.3)	1,255 (5.0)	-24.1
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, 권고사직	444 (1.2)	353 (1.4)	-20.5
사업장 이전, 근로조건 변동, 임금체불 등 자진퇴사	493 (1.3)	249 (1.0)	-49.5
정년	1,062 (2.8)	171 (0.7)	-83.9
기타	332 (0.9)	226 (0.9)	-31.9
계	38,243 (100)	24,892 (100)	-100.0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- 지역별(區)로 이러한(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) 퇴직 비율은 제조업 고용인원이 밀집해 있고, 취업자 및 퇴직자 수가 많은 성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음. 성산구의 퇴직자 사유별 비중을 보면, ‘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’ 비중이 34.2%로 의창구(18.7%), 마산합포구(22.7%), 마산회원구(19.0%), 진해구(19.4%)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음.

2020년 2분기 구(區)별 퇴직사유 비중

(단위 : 명)

	계약만료, 공사종료	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*	개인사정 (자진퇴사)	기타	계
의창구	1,528 (22.6%)	1,264 (18.7%)	3,534 (52.2%)	444 (6.6%)	6,770 [27.2%]
성산구	1,188 (12.5%)	3,250 (34.2%)	3,859 (40.6%)	1,197 (12.6%)	9,494 [38.1%]
마산합포구	594 (19.3%)	701 (22.7%)	1,552 (50.3%)	237 (7.7%)	3,084 [12.4%]
마산회원구	486 (16.1%)	572 (19.0%)	1,758 (58.3%)	199 (6.6%)	3,015 [12.1%]
진해구	444 (17.6%)	491 (19.4%)	1,417 (56.0%)	177 (7.0%)	2,529 [10.2%]

* 해고, 권고사직, 명예퇴직 포함

※ ()는 해당지역 내에서의 퇴직사유별 비중, []은 해당지역의 창원 내 퇴직자 수 비중